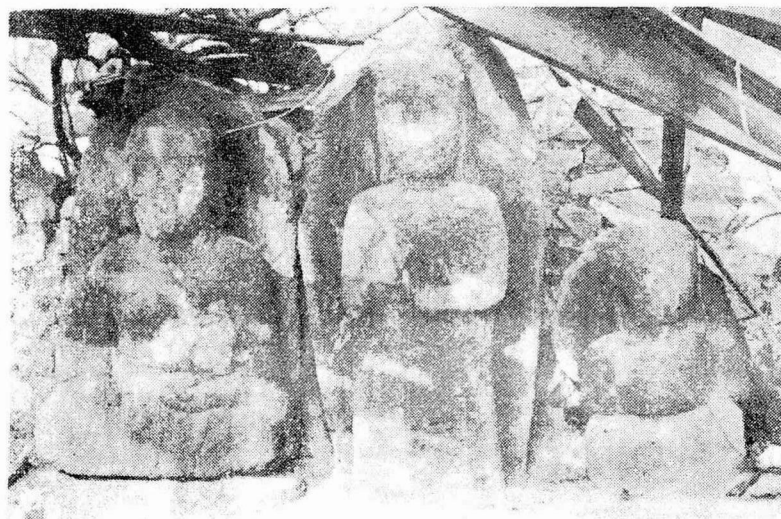


永川 曉洞의 石佛 三軀

鄭 永 鎬



慶北 永川郡 監阜面 曉洞의 栗林部落에 石佛 三軀가 遺存한다. 朝鮮

寶物古蹟調査資料를 보면 이곳 曉洞에古墳 數基가 殘存한다는 記錄이 있으나 石佛에 關해서는 資料에는 勿論이요 다른 記錄에도 보이지 않는다.

現在 이 石物은 「씨멘트」로 佛壇삼아 基臺를 마련하여 그 위에 奉安되었으며 周圍에는 石牆이 쌓였는데 이곳 住民인 盧漢容氏를 비롯 諸洞民의 말에 依하면 數年前까지도 單間 堂宇가 마련되었어서 雨露를 避하고 있었다는 바 暴雨에 破壞된 뒤 아직도 復

舊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石佛 三軀는 坐像과 立像 各一軀씩이고 上半身만의 佛像胴體인데 이곳이 原位置인지는 確言할 수 없으나 前記 盧氏는 四十餘年前인 이럴 때 부터 現位置에 保存되어 왔었던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現位置에서 西北쪽으로 約一〇〇m되는 곳이 裕稱「밤나무밭」이라 하여 栗林인데 이 周邊에서는 古瓦와 磁器片이 多數 採集되며 平平한 臺地를 이루고 있어서 寺址로도 짐작은 되나 建物址 등의 遺蹟은 殘存치 않는다. 如何튼 現在의 位置가 原狀은 아닌 것으로서 西쪽부터 坐像 立像 上半部의 順으로 奉安되었는데 各佛像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藥師如來坐像……坐像과 光背를 一石으로 造成하였는데 坐像은 完全한 圓刻으로서 背面一部分만이 光背面과 連하여 있다. 結跏趺坐하여 右手는 右膝上에 놓고 左手는 左膝上에서 藥盒을 들고 있으니 尊名은 곧 藥師如來임을 알 수 있다. 螺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었으나 破損되어 그 痕跡만 있고 圓滿한 相好도 各部가 破損되어 印象을 아주 그릇치고 있다. 兩耳가 길고 목에는 三道가 돌려 있어서 威嚴있는 尊容이었던 것으로 짐작 된다.

右肩偏袒의 法衣는 兩腕에 걸쳐 무릎을 덮었으며 앞자락도 보이는데 大體的으로 衣文은 單調로운 편이라 하겠다.

光背는 頭身光으로 區分되는데 二條의 圓圈으로 된 頭光이나 身光內의 間地에는 別다른 彫飾이 없고 周緣에 火焰紋만이 彫刻되었으나 現在는 磨滅이甚하다. 光背 頂部가 破損되었으나 寶珠形으로 짐작된다. 水成岩類의 石材이므로 原形을 分間할 수 없을 정도로 磨損되지 않은은 多幸이다. 相好의 輪廓이나 兩腕의 溫柔한 印象과 肩部 및 光背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新羅下代 造成으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現全高一〇七 坐高九三 頭高三一 肩幅四四 胸幅二九 膝高二〇 膝幅六五 光背廣幅六四 光背厚八 佛像陽刻三三이다. 菩薩立像……이 石像도 立像과 光背를 同一石으로 造成하였다. 머리에 寶冠을 쓰고 있으니 尊名은 곧 菩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磨損으로 寶冠의 各面 彫飾이 뚜렷치 않아 遺憾이다. 相好 全面에도 磨痕이甚

하나 圓滿한 輪廓과 어깨위까지 길게 드리워진 兩耳와 목에 둘러진 三道가 잘 어울려서 威嚴있던 尊容을 짐작케 한다. 法衣는 通肩으로 兩腕에 걸쳐서 내려진듯 하나 刻明치 않다. 兩足은 「씨멘트」 基臺로因하여 묻혔으나 兩脚의 區分은 確然하다.

光背는 舟形 學身光으로 現在는 上部가 破損되었으나 頂部가 寶珠形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全面에 磨損이 甚하나 火焰紋의 痕跡은 뚜렷하다.

兩肩과 腕部 및 頭像의 溫柔한 彫刻手法으로 보아 造成年代는 新羅下代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現全高 一二五 頭高 三四 肩幅 三九 胸幅 一三三 光背廣 幅 六四 光背厚 一〇 佛像陽刻 二二이다.

佛像 上半身胸體……胸部 以下가 切斷되었는데 現在 그 以下部材를 收拾치 못하고 있으므로 坐像인지 立像인지 그 形態를 알 수 없다. 現存部分으로 推定해 보면 佛像과 光背는 同一石으로 造成하였으며 尊像은 圓刻과 다름 없게 彫刻하였다. 相好 各部는 磨滅이 極甚하나 輪廓은 圓滿하다. 兩耳는 어깨위까지 길게 드리웠고 목에는 三道가 있다. 法衣는 通肩이며 兩肩과 胸部는 堂堂하고 溫柔하여 造成年代는 亦是 新羅下代로 짐작된다.

實測值(cm)는 現全高 五三 頭高三〇 肩幅 四〇 胸幅 二四 光背厚 八 佛像陽刻 一八

現在 이 胸像은 矩形石柱위에 놓여 있으나 이石柱는 花崗岩 自然石으로서 그 石質이나 形態等으로 보아 아무런 關聯도 없는 雜石이다.

以上 三軀의 石佛을 簡單히 紹介하였는데 그 造成手法이나 各部의 樣式으로 보아 三軀는 共히 新羅下代의 所作으로 推定되었다. 그리고 現在 三軀는 그 形態가 各異하나 同一한 場所에 奉安되어 있고 寺址로 推定되는 곳도 隣近에 位置하고 있다. 그러므로 萬若에 이 三軀의 石佛을 移安해 왔다면 이 곳에서 모셨을터인데 그리고 보면 三軀中 藥師如來坐像을 中央에 奉安하고 他二像을 左右에 脇侍로 모셨던 이른바 「三尊像」 이 아니었던가도 推定되는 바이다. (一九六七年 十二月 調査)

金庾信墓와 金仁問墓

朴 日 薰

最近에 李丙燾博士의 論文 內容 一部가 紙上에 發表되어 傳金庾信墓를 第四十五代 神武王陵으로, 角干 金仁問墓는 金庾信墓로 推定하였기 때문에 깊은 關心과 注目을 끌고 있다.

筆者가 이 두 遺蹟에 對하여 史料와 地名과 現存한 遺物을 들어 小考를 試함은 問題의 是非를 가리는 데 參考가 되게 하고자 함이다.

慶州 松花山中腹에서 南方으로 延延히 起伏을 일으킨 丘陵背上에 新羅統一以後부터 發達된 陵墓의 外飾石物이 兼備된 傳金庾信墓와 簡素하게 自然石으로 周圍를 둘러 太宗 武烈王陵과를 比較할 때 같은 時代의 人物로서 君臣의 嚴格한 差異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陵墓의 裝飾이 正反對로 되어 있으니 觀念的으로 金庾信墓의 確實性에 疑心하는 사람들도 許多함은 事實이다. 그렇다고 해서 太宗武烈王陵 側近에 있는 二基의 墳墓中 하나가 金庾信墓로 斷定될 수는 없다. 이 二基의 墳墓는 아직까지 金陽과 金仁問의 墓로 傳하는 바 三國史記 列傳에 記錄된 바와 같이 金陽은 「陪葬于太宗大王之陵」이라 한데 根據한 것이고 다른 一基를 金仁問墓라고 하는 根據는 「窆于京西原」이라 한데서 온 것이니 西原은 王京에서 西쪽인 西岳平野를 가리키는 말로 곧 여기가 西原에 該當되니 이 根據를 顯覆하고 金庾信墓를 現在 口傳되는 金仁問墓에 比定할 만한 根據는 매우 稀薄하다.

金仁問墓에 對하여는 또 하나의 重要한 考證資料가 있으니 一九三一年 이 墓에서 西北方 約二百m地點에 있는 西岳書院內 永歸樓 北쪽 築臺에서 發見된 上半部가 缺失되어 下半部만 남은 石碑가 注目된다. 碑身前面은 二十六行의 井間線에 階字體로 刻字되었고 碑文中 「祖文興大王」 이란 句節이 보인다. 文興大王은 三國史記 武烈王元年 四月에 「追封王